

자료집

정책토론회 |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이 남긴 질문들”

-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공식 남북 접촉, 8년 만의 남북 스포츠 교류
- 적대적 두 국가 시대, 남과 북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공동응원은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
-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행사개요

- 일시: 2026. 7. 15. 15:00 ~ 17:30
- 장소: 조영래 홀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 주최: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협력단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개회 15:00 ~ 15:20 등록 및 개회 - 개회사, 인사말

사회: 홍상영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발표 15:20 ~ 16:00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과 공동응원, 무엇을 경험했는가
- 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
-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16:00 ~ 16:50 **토론**
남북관계 분석전망 -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응원 현장 경험 및 시민사회 역할 - 최영욱 자주통일평화연대 조직위원장
공동응원을 바라보는 청년세대의 시선 - 김진규 통일법정책연구회 변호사
언론 시각, 논란의 본질과 개선 방향 - 하채림 연합뉴스 기자
남북 체육 교류 방향 - 이조영 「적대적 두 국가의 스포츠교류와 평화」 저자

16:50 ~ 17:30 질의응답 - 참석자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 행사 목적

- 2026년 5월 17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헌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첫 공식 남북 접촉이자, 2018년 이후 8년만의 공식 스포츠 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방한 과정에서는 공동응원단 구성,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 상호 명칭 사용, 응원 방식과 상징물, 기자회견 돌발 퇴장 등 과거 남북교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쟁점과 사회적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변화한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을 드러낸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과 공동응원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 시대 남북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하고,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공동응원단을 직접 기획·운영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연구자, 언론인, 청년 법조인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또한 공동응원을 함께 준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단체로 참여해 공동응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되짚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7월 15일(수) 오후 3시 ~ 5시30분
- 장소: 조영래홀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 주최: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협력단체 :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 프로그램

[개회]

- 15:00~15:20 || 등록 및 개회 (개회사, 인사말)

[토론회] 사회: 홍상영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발표: 15:20~16:00

1.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과 공동응원, 무엇을 경험했는가
 - 정육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2.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
 -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토론: 16:00~16:50

1. 남북관계 분석전망
 - 정일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 공동응원 현장 경험 및 시민사회 역할
 - 최영옥(자주통일평화연대 조직위원장)
3. 공동응원을 바라보는 청년세대의 시선
 - 김진규(통일법정책연구회 변호사)
4. 언론 시각, 논란의 본질과 개선 방향
 - 하채림(연합뉴스 기자)
5. 남북 체육교류 방향
 - 이조영(「적대적 두 국가의 스포츠교류와 평화」 저자)

- 참석자 의견 개진 및 질의 응답 16:50~17:30

발 표 문 1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과 공동응원, 무엇을 경험했는가?

개인적인 소회를 중심으로

정옥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1. 공동응원단 결성

‘내고향팀이 올 것 같아요?’

2025~202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대회 준결승과 결승이 한국의 수원에서 열리고 조선(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4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안 온다고 하네요.” 나는 4월 중하순에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온 한 호주 동포로부터 들은 이 얘기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동포는 조선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다.

“정 선생, 올 것 같으니 공동응원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윗선에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나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징후로 4월 말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를 주목하라고 주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축구의 선전은 아시아 대륙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입니다.”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밴쿠버에서 김일국 조선축구협회 회장에게 한 말이다.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가 식민지 조선을 가리켜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쓴 시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살만은 “조선 여자축구는 세계적인 모델이며, AFC는 앞으로도 조선축구협회의 포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C가 내고향팀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엇갈린 소식을 접하면서 반신반의하던 5월 4일에 뉴스 속보를 접했다. 내고향팀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 전에 나는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내고향팀이 오면 공동응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터였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여자축구 대회에 시민 응원단을 조직해 호주 동포들과 한국팀과 조선팀을 열띠게 응원한 바도 있었다. 민간단체들과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5월 11일과 5월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이 공동응원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인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연대 등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20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 회의에 모인 관계자들은 빗발치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효과적으로 임해달라며 필자를 단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내고향팀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FC도 응원한다는 취지로 준결승의 공식 응원 명칭도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으로 정했다. 어느 팀이 올라가도 결승전 응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 준결승과 결승전

‘하늘도 야속하지.’ 전날까지 쾌청했던 하늘은 수원FC와 내고향팀의 준결승이 열린 20일 저녁에는 거센 비바람에 자리를 내주었다. 경기 직전 나의 시선은 ‘이번에도 조선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거부할까’에 맞춰졌다. 열흘 전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17세 이하 여자대표팀 경기에서 조선대표팀은 한국 선수들의 악수도, 하이파이브도 받지 않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이파이브도 했고 경기 중 넘어선 수원FC 선수의 팔을 두드리기도 했으며 경기 후에는 가벼운 손 인사도 나눴다. 공동응원단의 목표가 ‘평화’와 더불어 ‘페어플레이’였는데, 조금이나마 이 정신이 구현된 셈이다.

‘어느 팀을 응원하세요?’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단장으로서 양팀의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무승부’라고 말하다가 말끝을 흐리곤 했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했고, 본 경기가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까지 가면,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도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공동응

원단을 향한 후폭풍이 걱정된 탓인지, 수원FC가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고향팀의 2대1 역전승으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에는 기쁨에 겨워 경충경충 뛰는 내고향 선수들과 얼굴을 감싸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수원FC 선수들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내 눈가에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이슬이 맺혔다.

악천후 속에서도 약 2200명이 함께 한 공동응원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인색했다. 일부 언론에선 ‘내고향팀 응원 소리가 더 컸다’거나 ‘지소연 선수가 페널티 킥 실축을 했을 때 환호성이 나왔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수원FC가 우세할 때에는 내고향의 분발을, 내고향이 앞서갈 때엔 수원FC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지소연의 실축에도 환호했다기보다는 ‘아~’하는 탄식하는 소리가 더 컸다.

사흘 후 피약별이 내리 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에선 내고향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내고향 선수들은 기쁨에 겨워 인공기를 들고 손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돌았다. 선수들이 공동응원단 앞에 이르자 2천명에 육박한 공동 응원단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내고향’에서 왔다고 여겼는지 조선이 고향인 이산가족과 북향민의 환호가 더 컸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 선수들이 ‘적대국’이라고 배운 한국에 와서 일본팀을 꺾고 우승하고, 한국 시민들은 인공기를 펼쳐두고 자축하는 조선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는 장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 ‘저 선수들은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들을 수 없는 질문을 떠올리던 사이에 옆에 있던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소감을 물었다. “정치가 아직 하지 못한 일을 스포츠가 먼저 보여줬고, 응원단이 동포애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3. 질문들

(1) 내고향팀은 왜 온 것일까?

내고향팀의 방한은 뜻밖이었다. 나도 방한 가능성을 낮게 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고 밝혀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내고향팀이 방한기로 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조선의 양자 대회가 아니라 국제스포츠 대회인 만큼 조선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대회 불참시 불이익과 15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 조선 여자 축구의 우수한 실력을 과시해 체제 선전을 하려는 의도 등이 그것들이다.

기실 내고향팀의 방한 자체가 적대성이 완화되었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년 전처럼 양측이 풍선을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틀어대면서 일촉즉발의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내고향팀의 방한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조선은 내고향팀 방한을 통해 한국이 자신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타진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내고향 선수단은 입국 과정에서 방한허가증이 아니라 여권을 내밀었었다. 후술하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 국호를 불러달라고 최초로 요구하기도 했다.

(2) 왜 국민 세금을 쓰느냐?

내고향팀의 방한과 공동응원 추진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하자 ‘우리 국민 혈세 3억원으로 북한 축구팀 응원’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계속 쏟아졌다. 일부 언론은 ‘관제 응원’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웠다. 공동응원단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축구팀 응원’, ‘국민 세금 3억원 지원’이라는 초기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

그런데 이번 공동응원은 ‘선민후관’이었다. 민간이 먼저 공동응원단을 조직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하자 정부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 물론 ‘민간단체의 공동응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는 뼈아프게 다가왔다.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교류협력기금 사용이 공동응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대의를 앞세운 나머지 여론의 반응을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

(3) 왜 한국 단체들이 ‘공동’ 응원을 하는가?

초기에 언론이 제기한 ‘국민 세금 3억원으로 북한 응원’이라는 프레임은 ‘내고

향팀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FC 위민도 함께 응원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통해 일정 부분 수습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축구팬, 그리고 수원FC위민 등은 '왜 공동응원'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준결승에서 공동응원단이 내 고향팀을 더 열렬히 응원했고 지소연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 때 공동응원단에서 환호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동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도 자료에서도 밝힌 것처럼 공동응원의 취지는 “이번 대회가 한국과 조선(북한) 사이의 긴장완화의 반영이자, 여전히 남북관계에 서려 있는 냉랭함을 조금 이나마 녹여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왜 순수한 스포츠 경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북한) 선수단의 8년 만의 방한이 이미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스포츠가 순수하게 정치와 분리되어 있었다면, 양측 선수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 오가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양측의 관계가 먼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응원은 바로 그 방향을 향한 작은 걸음이었다.

동시에 한국과 조선의 경기에 우리 시민이 ‘공동’ 응원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방식이 좋을지, 한국팀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조선팀의 선전도 기원하는 방식이 좋을지를 두고 차분한 토론과 소통을 기대해본다.

(4) 왜 ‘무음’에는 답변했을까?

나의 큰 관심은 ‘내고향 선수단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응할까’에 있었다. 내고향 감독인 리유일은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2023년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한국과의 8강전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과 2024년 2월 ‘파리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측’이나 ‘북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질문하자 공식 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던 터였다.

그런데 결승에 앞서 여러 차례 있었던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고향 선수단은 한국 기자들과도 일문일답에 응했다. ‘어? 배척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네.’ 기자회견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는 동영상을 살펴보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한국 기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과 같은 공식 국호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 질색하는 ‘북한’이나 ‘북측’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질문하자, 리유일 감독과 김경영 선수도 하나하나씩 답을 이어갔던 것이다.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클럽간 경기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3월 호주 여자 축구대회 of 풍경과도 사뭇 다른 것이었다. 당시 조선 대표팀은 사전에 감독과 주장에 사전에 전해진 1개씩의 질문에만 답변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호를 무음으로 처리된 모든 질문에 답을 했었다. 한국의 ‘특수관계론’과 조선의 ‘두 국가론’ 사이에 ‘기묘한 교집합’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조선이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반면에 적대성에 있어서는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찰이 필요하다. 조선이 적대적이고 모욕적이라고 간주하는 표현을 고수하면서 적대성의 책임을 저쪽으로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5) 왜 공식 국호를 불러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을까?

내고향팀의 우승 기자회견 막바지에 한 기자가 “북쪽,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리유일 감독은 “호칭을 좀 바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해당 기자는 “어떻게 해드릴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조선 축구단 통역사는 “국호를 바로 해달라는 것입니다”라고 했고, 옆자리에 있던 최우수선수(MVP) 수상자이자 주장인 김경영 선수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기자 입에선 끝내 공식 국호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은 내고향 선수단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은 조선 선수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까? 만약 해당 기자가 호칭을 ‘무음’으로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 내고향팀의 요청대로 공식 국호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내고향팀의 선수단은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답변을 했을 것이고, 이는 국내에서 호칭 문제를 둘러싼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 단어의 차이가 빚어낸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셈이다.

아마도 내고향 선수단은 한국 기자가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부르면서 던지는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말고 항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조선은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 한국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에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언론은 공식 국호 사용을 여전히 꺼려한다. 흔히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적대적인 남북관계에서 스포츠마저도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결론을 대신해서

끝으로 이번 공동응원과 관련해 색다른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 응원단을 격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일부 한국 언론 및 축구팬과 내고향 선수단은 우리에게 공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국내에선 ‘왜 우리팀이 아니라 공동응원을 했냐’는 편견이 나왔고, 내고향 선수단은 경기장에 모인 공동응원단과 공향에 나온 환영·환송 시민을 없는 존재처럼 대했다. 나는 전자의 반응에는 동포애를 이해해달라고, 후자의 반응에는 동포애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다.

동포애? 국내에선 분단이 장기화되고 남북 교류협력마저 끊기면서 동포애를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응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동포애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동쪽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족 개념 지우기에 바쁘다. 이러한 조선의 기조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게다. 그런데 이해와 존중과 사랑의 정신이 담긴 동포애는 다르다. 나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조선에 전하는 것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장 우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스포츠를 통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사례는 그 자체가 크나큰 도전이자 낯선 여정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는 적대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거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스포츠를 활

용했었다. 하지만 3월 호주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 및 5월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대회에 대한 공동응원은 ‘적대적 두 국가’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만큼 스포츠 및 응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긴 안목을 요한다. 가깝게는 오는 가을 아시안 게임이 일본에서 열리고, 내년 충북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다. 또 2028년에는 평양에서 아시아탁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2년 후 평양에서 우리 시민이 조선 인민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는 장면을 상상하고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발 표 문 2

정책토론회 발표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이 남긴 질문: 통일이냐? 평화공존이냐?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목차

- 들어가며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한 붕괴?
- 통일의식조사
- 평화가 우선이다
- 마치며



1. 들어가며

들어가며

1) 남북관계의 현재

📍 완전한 단절

- 2018년 12월 14일 「남북체육분과회담」 개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남북회담 미개최
 - 1971년 남북대화가 처음 시작된 이래 최장의 단절 기간으로 기록
 - 과거 최장의 남북대화 단절 기간은 1980.8.20~1984.4.9의 약 3년 8개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차단: 2023년 4월 7일
 - 이전에는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
 - 김정은 국무위원장 ‘**적대적 두 국가**’ 선언: 2023년 12월
 -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차단 및 방벽 설치: 2024년 10월 15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2026년 2월
-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영원한 적”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들어가며



북한 경의선 도로 폭파 모습 (2024.10.15.)
사진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0/15/53CHMHPOSVADRB2YGYQNI456/>

들어가며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104018700641>

들어가며

2)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 방문증명서 vs. 여권



내고향여자축구단 입국 당시 모습
사진 출처: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6>



5월 20일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경기 당시 남북공동응원단의 응원 모습
사진 출처: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6>

들어가며

3) '하나'로 통일 vs. '평화적 두 국가'



내고향여자축구단 우승 이후 인공기 들고 달리는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3038851007>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및 응원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183100007>



2.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무력 북진 통일론'

❖ 협상이 아닌 무력을 통한 북진 통일

-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괴뢰정부'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강력하게 주장
 -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을 견제
-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협상 반대
-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공군의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 진보당 사건(1958):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죄로 사형에 처한 정치탄압 사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2) 박정희 정부의 '평화 통일론'

- 「8·15 평화통일구상(1970.8.15.)」
 -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통일정책
 -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
-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조국통일 3원칙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3)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의 '평화 통일론'

-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
 -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이 삽입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1980년 제5공화국 헌법(1980.10.27.)
 - 제4공화국 헌법에 이어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명시
 -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4) 제6공화국 (현행) 헌법의 '평화 통일론'

● '1987년 체제'와 제6공화국 헌법(1987. 10. 29.)

- 제6공화국 헌법: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으로 전문에 평화적 통일 관련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4조에 통일 관련 조문 신설**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아직 수복하지 못한 '민수통치지역'으로 규정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5) 통일의 당위

●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가치'로서의 통일

- 분단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통일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 강조
- 특히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표현이 삽입된 이후 통일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 강조됨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통일 관련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8~90%에 달함
 - 1994년 민족통일원 실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91.6%에 달함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중 8.4%)
 - 2005년 통일연구원 실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주장에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 83.9%에 달함 (매우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은 16.1%에 불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6) 분단의 현실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9.17.)

- 1948년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단독 가입을 추구하였고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였음
- 1990년대 들어 남한과 소련의 국교 수립(1990년 9월), 중국과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1990년 10월) 등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승인

● '사실상 2국가 2체제'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국가와 2개의 체제가 실재하는 현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함



3. 북한 붕괴?

북한 붕괴?

1)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북한 붕괴론의 역사

- 소련 및 동구권 몰락(1991)과 김일성 사망(1994)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1990년대)
- 김정일 뇌졸중(2008.8.),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2010)과 리비아 정권 붕괴(2011)
- 김정일 사망(2011.12.) 이후 김정은이 만27세 나이로 권력 승계

북한 붕괴론의 논리

- 주민들의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주로 국방비에 투자
-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를 지속할 경우 북한은 조만간 붕괴
- 세습통치와 독재·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주민 봉기할 경우 붕괴
- 김정은 건강문제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바로 붕괴

북한 붕괴?

2) 북한의 현재

'사실상 핵 보유' 국가: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중

- 코로나 팬데믹 시기 단절되었던 중국과 협력 제한적으로 재개
- 2024년 6월 평양에서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 핵무기 고도화
 -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만리경 1호) 발사 성공, 2024년 10월 '최종 완결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 발사

러시아 파병 이후 경제 상황 호전: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한국은행)

-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7%
 - 코로나 시기 2020년 -4.5%, 2021년 -0.1%, 2022년 -0.2% 마이너스 성장률; 2023년 3.1%로 반등 후 더 높은 성장률
- 2024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171.9만원
 - 2022년 143.0만원, 2023년 158만원에 비해 급속 증가

북한 붕괴?



2024년 4월 16일 준공식을 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자주시보 <https://www.jajusibo.com/64832>

북한 붕괴?



사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swU7vxqdP-Q> 캡처

북한 붕괴?

주요국 핵탄두 보유량 현황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5 연례 보고서
(단위: 개) ※2025년 1월 배치탄두* 기준, 괄호 안은 전체 보유량**



그래픽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03096.html

*미사일에 장착되었거나 작전부대 기지에 배치된 탄두
**배치, 저장, 화력적인 전력에서 제외했으나 해제되지 않은 탄두의 합

朝鮮日報

美, 北엔 이란처럼 못하는 이유... 김정은 손에 이미 핵탄두 50개

2025년 05월 23일 (일)
국제 05면

국제 정치·사회·문화·경제

미국 정부(조 바이든)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조 바이든)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붕괴?

뉴스9

KBS 뉴스

뉴스9 TV 뉴스 심층취재 스포츠 시사프로그램 지역뉴스 속보

정치

“북한 핵무기 현재 최대 150발...2040년엔 400여발 가능”

입력 2025.11.26 (17:33) | 수정 2025.11.26 (17:33)

인쇄 | 요약



사진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7854>

북한 붕괴?

-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가능한가?
-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 89.7%
 -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 북핵 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불가에 대한 찬성 의견 34.5%; 남북 경제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56.5%
 -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당분간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고민해야
- 통일이냐? 평화공존이냐?



4. 통일의식조사

통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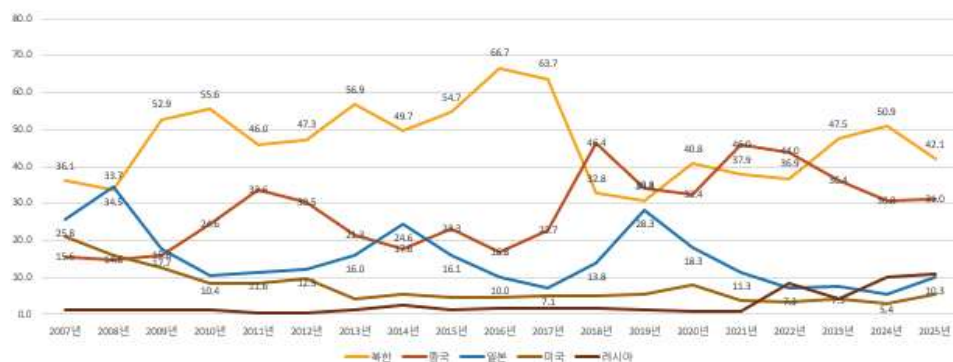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갤럽에 의뢰해 만19 이상 74세 이하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 2025년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2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 실시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통일의식조사

☪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중국



통일의식조사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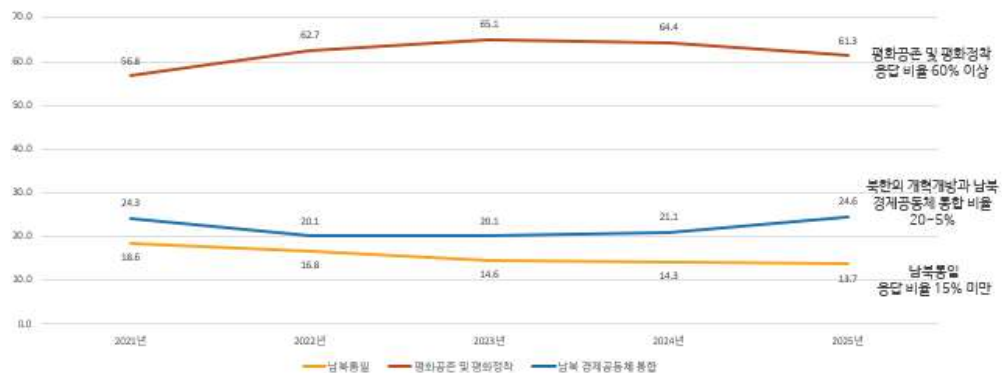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동의



통일의식조사

대북정책의 목표

-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로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가 우선이다

☛ 선(先) 평화 후(後) 통일 선호 여론

- 통일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로가 좋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대북정책의 목표로 남북통일 보다 남북한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선호함

☛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 69.7%
-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 남북 경제협력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56.5%
-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당분간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고민해야**

평화가 우선이다

어떻게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 평화공존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 및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국내적으로 북한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
- 실체를 부정하면 공존은 불가능 (공존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함)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을 폐기하고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정립 필요

‘적대적 두 국가론’ vs. ‘평화적 두 국가론’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함
-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 구축이 필요

평화가 우선이다

서독의 기본법(The Basic Law of FDG) 제23조 (1949년 5월 23일 공포)

- “For the time being, this Basic Law shall apply in the territory of the Laender Baden, Bavaria, Bremen, Greater Berlin, Hamburg, Hesse, Lower Saxony, North Rhine-Westphalia, Rhineland-Palatinate, Schleswig-Holstein, Wuertemberg-Baden and Wuertemberg-Hohenzollern. It shall be put into force for other parts of Germany on their accession.”
- “본 기본법은 당분간 라에더 바덴, 바바리아, 브레멘, 대베를린, 함부르크, 헤세, 니더작센, 북라인-베스트팔리아,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헨졸레른 지역에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지역은 가입과 함께 이 법이 발효된다.”
- “본 헌법은 당분간 정전협정에서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만 적용된다.”

평화가 우선이다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유지되고 있음
 - 1단계 화해협력: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및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공존 추구
 - 2단계 남북연합: 남북 간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의 구성·운영
 - 3단계 통일국가완성: 남북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
- 3단계 통일국가완성을 위한 첫 단계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설정
- '평화가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다'

마치며

‘평화가 통일로 가는 첫걸음’

감사합니다!

토 론 문 1

남북관계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일영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 한반도 정세의 변화

1) 10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 2016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연출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실패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자력갱생을 추진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북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극단적 고립상태 자처

2) 러-우 전쟁의 발발과 북-러, 북-중 관계의 밀착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생하고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하며 북-러 관계가 급속히 밀착되었으며 북한의 대, 내외 위기 탈출구로 활용
-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에 준한 수준으로 북러관계 격상
- 또한 2026년 6월 8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최근 북중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북중관계를 2016년 대북 제재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모습

3) 미-중 전략경쟁 속 리스크 관리

- 트럼프 1기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가 강대국 간 행위 양식으로 부상, 다만 최근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찾으며 긴장 속 리스크 관리 모드
- 북-미, 한-러 간 관계 개선 가능성, 중-일 간 긴장 지속 등 기존의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해석하기 어려운 정세 변화

2. 특수한 남북관계의 등장과 한계

1) 남북관계 특수성의 등장

- 1948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수립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음
- 서로를 부정해 온 남과 북은 냉전의 해체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정치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을 모색
- 남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소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규범 등장

2) 남북관계 특수성의 효용

- 국제정치에서 개별 국가로 존재하는 남과 북은 국내 법제상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상호 규정
- 남북관계는 특수하다는 명제는 정전체제하에서 남북 당국이 협상 공간을 마련하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을 부여
- 이는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황금기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제도화되지 못함

3) 남북관계 특수성의 한계

-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반대로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음
-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의 특수관계에 따라 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에 준한 합의로, 법적 효력을 잃고 정권교체에 따라 사문화
- 다만, 이러한 한계와 변화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소멸되었다기보다는 분단체제 속에 그 특수한 성격의 모순이 드러난 것으로, 여전히 남과 북은 정전체제 하에서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음

3. 최근 남북관계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남북관계 변화의 동학

- 남북관계의 변화를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된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된 후속 조치, 그리고 그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사회, 전문가의 대응이란 대당으로 해석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
-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갈등 구조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내부에서 분단체제에 기반한 통일 담론에 대한 무관심 내지 저항이 발생
- 최근 남북관계는 남과 북에서 쌍방향으로 진행, 즉 권위주의체제인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민주주의체제인 한국에서는 아래로부터 변화가 주를 이룸

2)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

- 북한에서 제기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에 이를 일부 반영(국경)
 -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전대 지도자들의 유훈과 정치적 성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잠재
- => ‘적대적 두 국가관계’ 담론이 주장하는 동족 부정과 통일 거부가 즉각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세대별, 성분별로 다소 차별적으로 이해될 가능성

3) 한국에서 대북, 통일 인식의 변화

-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 당국 간 불신 속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통일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는 여론(54.5%) 또한 증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4%, 2030세대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의 실패를 넘어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인식변화, 특히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감대 저하, 통일 유인으로서 전쟁 위협의 제거, 즉 평화에 대한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

4.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과 시민사회의 역할

1)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의 위기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사회통제가 정당화 되었고 이후로도 국가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시민사회의 활동 범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

- 다만, 기존에 남북관계를 주도해 온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출구 전략,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시 확대될 필요
- 남북 당국 간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해외 동포 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 필요

2)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의 의미

- 2026년 5월 개최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시사하는 점이 큼
-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비정치' 분야의 '국제 관계(대회)'에서 남북 간 접촉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한국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
- 또한, 해외 동포사회의 역할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 일례로 2026년 3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에서 남북공동응원단이 결성되어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음

3) 향후 전망

- 강대국 간 열전 속에 자국우선주의로 치달는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
- 남과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나 분단 체제의 모순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로 아직은 그 변화의 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동북아에서 평화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토 론 문 2

공동응원 현장 경험 및 시민사회의 역할

최영옥 | 자주통일평화연대 조직위원장

자주통일평화연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8-2009년 월드컵 지역 예선 남-북 경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7년 강릉 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A,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측 시범단 방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전 탁구코리아오픈대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26년 내고향축구단 응원에 이르기까지 한국(남측)을 방문한 북측 선수단, 남북 단일팀 응원을 꾸준히 진행해 왔음.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각 공동응원은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공동응원 현장 경험

1.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 사업’

<개요>

- 북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입장을 밝힘에 따라, 6.15남측 위원회(현 자주통일평화연대), 민화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전국단체와 인천지역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 인천 지역 4천명, 전국 1천명의 응원단이 참여함.
- 북의 응원단 참여 계획에 따라 공동응원 추진 등을 제안, 추진했으나, 최종 북측 응원단 방문은 불발되었고, 한국측 응원단이 북측 주요 경기를 응원함.

<총평>

-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던 시기에 북측 선수단이 참여하는 만큼, 민간차원에서 북측 선수단을 환영하고, 화해와 평화, 통일을 향한 시

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표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연인원 약 6,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북측 선수단과 남북 경기를 응원하였음. 당시 북 남자축구 심현진 선수가 첫 골 이후 공동응원단 앞에서 골세리머니를 펼치고, 황장수 감독이 "남북공동응원단에 감사하다"고 발언하는 한편, 매 경기마다 북측 선수들이 응원단을 찾아 적극적으로 인사를 나눔.
- 아울러,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북측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하여 정부와 회담을 가졌고, "남측응원단의 사심 없는 응원으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한 뚜렷한 성과를 남김.
- 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 활동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 스포츠 경기를 통해 마련된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뜨거운 열망을 적극 표출하고 교류의 단초로 이어지는 '가교'로서의 의미를 뚜렷이 보여주었음.

2.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사업'

<진행 개요>

- 6.15남측위원회는 스포츠 경기를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지난 경험에 기초하여, 2017년 남북해외위원장 회의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 남북 공동합의를 이룸.
- 2018년 북이 신년사를 통하여 올림픽 참가 및 남북 대화 의사를 전격 발표 이후 선수단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 140여 명 규모의 삼지연관현악단(예술단)과 229명의 응원단이 방한함.
- 6.15남측위원회는 2017년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응원단 구성을 준비해 오던 중,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고위급 및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적극적인 환영사업과 함께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여 민족화해, 협력의 기운을 크게 고양시키기로 하고 지역별 환영현수막 달기, 환영행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0여명 규모의 남북공동응원단 모집에 나섬. 일본과 해외에서도 응원단으로 약 100여명이 참여함.
- 남북공동응원단 사업과 함께 평창과 강릉 현지에서 최대한 대중적인 지지, 환영의 열기를 모아내기 위한 6.15남측위원회 차원의 조치로서 '민족화해한마당'을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환영, 단합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하였음.

<총평>

- 2018 평창 공동응원단 사업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평화 정세로 돌려세운 '평화 올림픽'의 핵심 동력이 되었음. 남북 단일팀, 북측 방문단에 대한 보수 수구세력의 공격이 극심했던 초반에 대대적인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일팀 경기 등에서 남과 북이 어우러지는 응원을 실현해 냄으로써, 경기장 안과 밖에서 뜨거운 단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함. 특히 단일팀 첫 경기부터 모든 경기 동안 응원단만의 응원이 아니라 경기장의 관객 전체를 아우르는 응원을 이끌어 내 북측 대표단의 감동적인 평가와 아울러 내외신을 통해 전 세계 강렬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함.
-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기세 결집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당국이 만들어 낸 평화의 불씨를 더 확장시켜 내는 <평화의 불쏘시개>가 되었음.

3.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사업

<진행 개요>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전격적인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졌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함께 한국에서 140명의 응원단을 구성, 파견하였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자카르타 촛불행동', 인도네시아 민주평통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인원 2천여명의 응원단을 함께 구성하였음.
- 개·폐막식 공동입장, 남북단일팀 및 남과 북의 주요 경기 현장에서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남과 북의 교민 응원단들이 뜨겁게 어우러지는 통일 응원을 이뤄냄.
- 현지 교민들과 함께 하는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민족단합의 기운 고양

<총평>

- 6.15남측위는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활동을 통해 남과 북 현지 교민들의 교류와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북측 유관 단체와 기관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남과 북 현지 교민들이 함께 통일 응원을 이뤄냄. 이를 계기로 아시안게임 이후 인도네시아 주재 북측 대사

관에서 남측 교민 대표들을 초청하는 등 현지 남, 북 교민 사이의 교류를 이어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함

- 공동응원은 단일팀과 선수단의 기세를 올리는 데도 일조하였고, 이는 경기에서의 선전으로 이어짐. 였는데, 남과 북 선수들, 감독, 코치진들이 여러 차례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확인됨
- 현지 교민단체에서도 응원단 체계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여 공동응원을 진행함으로써 교민들의 참여와 통일의식 고양의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내기도 함.

■ 2026년 내고향축구단 방한과 공동응원

<진행 개괄>

- 내고향축구단 방한 결정 이후 입국 경로 및 시간, 경기일정 및 숙소 등 제반 동선을 포함한 주요 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응원단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일부는 교류협력 기금 3억원을 지원 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확인 됨.
-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번 경기가 남북교류나 관계개선의 물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환영의 뜻을 적극 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따뜻한 환대 및 경기 선전 지원>과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 사전 방지>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공동응원단을 조직기로 함. 단체 및 전국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응원단 참여함.
- 8여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북)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 환영, 환송을 준비하였고, 이례적으로 입국 시간, 숙소 등 조선(북) 선수단 및 스텝진의 기본 동선이 공개된 것에 우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동선에 따른 공간 사진 집회 신고를 내고, 경기장 및 숙소 주변에 전국단체들의 환영 현수막 구호를 받아 게첨 하였음

<2026 여자축구 공동응원단 관련 평가 의견>

- 평가에 앞서, 2023년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조선(북)이 한국을 방문한 첫 사례이고, 남과 북이 서로 상대하는 교류적 측면이 아닌 클럽차원의 국제 스포츠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교류와 협력의 상대라는 정체성을 서로 갖고 있는 때에는 스포츠 경기, 응원이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나누고 협력을 추구한다는 상징성을 대내외로 표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

나, 교류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는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스포츠 경기, 응원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미를 애써 부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폭력이기도 함.

- ‘내고향축구단’의 방한 결정 직후 보여준 통일부의 행보는 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음. 통일부는 산하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내세워 공동응원단 구성에 나섰고, 곧바로 3억 원의 교류협력기금 지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 관(官) 주도라는 여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하 기관을 앞세우는 형식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원협회>가 주도한 가운데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단체나 단체 회원들은 관 주도의 행사라 인식을 떨치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평창올림픽 등에서 확인되듯 공동응원단 사업은 민간의 유연성을 기초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 또는 측면 지원해도 되는 사업임.

성급한 교류협력 기금 지원 결정과 노출은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공격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통일부의 조급한 실적내기 보여주시식 사업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했음.

- 조선(북)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개 국가 선언> 이후, 내고향축구단의 방한은 이 새로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첫 사례임. 과거 교류와 협력을 서로 지향했던 시절의 응원단 사업과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내용, 방식도 당연히 달라졌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 논의는 실종된 채 과거 방식 그대로 응원단 조직과 방식에만 매몰된 측면이 큼.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원단을 조직하는 주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방한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오작교’, ‘남북 스포츠 교류의 새 장’이라며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남북 관계의 숨통이 트인 것처럼 오도하고 과장한 측면도 존재하였음.

- ‘내고향축구단 방한’, 그리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경기 응원’은 결코 교류 협력 사업이 아님. 그저 스포츠 관람 및 응원임. 교류 협력은 상대(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소통과 교류 없이 진행된 사업을 특별한 교류협력사업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오랜만에 방한한 조선(북)의 동포들에 대한 기층 현장의 따뜻한 정을

체감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였음. 촉박한 응원단 모집 기간에도 제 단체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친 곳은 날씨에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목청껏 응원하던 참가단의 모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음.

- 또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조선(북) 선수단의 모습에 서운함이 있을 법함에도 불평불만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성숙한 태도를 취한 참가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음.

- 이번 응원단 활동은 한반도의 '적대적 두 국가'라는 엄정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전과 같은 교류 협력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임을 절감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우리가 직시해야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국호 및 호칭' 문제임. 그동안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국호 문제는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내고향 축구단'의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부각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 하겠음. 최근 7대 종단 전 수장들의 시국선언에서 '국호'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내고향축구단 방한과 응원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음. 한/조선(북)의 관계가 개선되고 실질적 교류협력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적대적이고 교전중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럴 때 시민사회는 관계 개선에 필요한 제반 의제를 정부 당국에 제기하고 그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를 견인하여야 함.
-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신뢰회복임.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며 실천에 나서야 함.

첫째, 조선(북)에 대한 적대시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비롯하여 조선(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류의 대상이 아닌 '수복해야 할 영토'이자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적·구조적 모순을 과감히 개혁하는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상대방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절멸 혹은 흡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적 토대 위에서는 그 어떤 지속 가능한 평화도 불가능함.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법제도적 정비야말로 신뢰 형성의 출발점임. '국호' 문제 또한 이러한 법 개선의 선상에 놓일 때 더욱 실질화 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접경지역에서 긴장과 충돌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내고향 축구단> 방한 기간에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대규모 합동화력훈련>이 진행되었음.

평화공존을 주장하며, 관계개선의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마당에 우발적 충돌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자극적인 군사 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됨.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집권초기 주장했던 '9.19선언 복원'에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해야 함.

셋째, 상대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적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북)을 적대시하고 지도부 참수 등을 목적으로 삼는 한미 및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은 상대방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갈 뿐이며, 군사적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임.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공세를 지향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방어적 통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함.

성급한 희망을 넘어 근본적 변화로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함. 축구단의 방문에 환호하는 것만으로 한/조(북) 관계의 해빙기를 맞이할 수는 없음.

지금은 감상적 교류협력의 환상에서 벗어나, 한/조(북) 간의 적대적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법적·군사적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임.

시민사회는 교류의 메신저라는 협소한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종식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요구자'로 거듭나야 함. 구조가 바뀌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흘러야 비로소 지속적인 교류도 가능해짐. 제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향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함.

토 론 문 3

공동응원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시선

김진규 | 변호사, (사)통일법정책연구회

1. 교류에 이르지 못한 접촉

「대한민국헌법」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뜻깊은 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 대표로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마흔을 앞둔 제가 ‘청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년 세대의 ‘대표’는 더더욱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청년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공동응원 사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이번 토론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득 “교류”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내고향녀자축구단 방남을 두고 “8년 만의 공식 스포츠 ‘교류’”라는 언론의 표현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교류”란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름’이라거나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이라고 합니다.¹⁾ 그런데 내고향녀자축구단이 인천공항에서 굳이 여권을 내보이면서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며 걸어가는 모습, 리유일 감독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류’를 원했지만, ‘접촉’으로 끝났구나.

2. 그로부터 느끼는 감정의 표현 방법으로써 공동응원에 대한 비판

정치적 입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준 마음의 크기만큼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탈감, 허망감, 공허감, 서운함, 민망함, 불안함, 실망감이라던가 정확하게 포착하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어 : 교류)

기 어려운 감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동응원’에 관하여 나타난 여러 비판은 바로 이런 감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응원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정확하게 언어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운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고향녀자축구단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소식을 접한 2030 세대들은 많은 적든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공동응원의 적정성·필요성·실효성에 대한 의문, 남북협력기금 지원이라던가 응원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 : 적의를 가진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

나에게 적의를 보이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상대방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주면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친하게 지내자고 끊임 없이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상 마음에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호의조차도 나에게 대한 공격으로 쉽게 오해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20대는 시험공부뿐이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수능시험을 3번 치렀고, 사법시험은 8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두려워지면서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주변에 대해 날카로워지더군요. 그런 저에게 오히려 자기 휴가를 내어 차를 끌고 새벽에 공항 활주로가 보이는 언덕에 데려가고, 반차를 내어 월미도에 데려가 인천 앞바다를 보여주며, 갑자기 시원한 슬러시 한 잔 사주면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바닷물에 발을 적시고 바지락칼국수를 먹게 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폄하하는 사람들에 맞서 저를 옹호해주고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있다는 북한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주고 국제사회의 폄하로부터 북한을 옹호(물론

북한의 모든 거동을 옹호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거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해 줄 역량이 충분할까요?

북한이 우리와의 교류를 단절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 우리 사회가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 부분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새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의 시선과 활동이 지금으로서는 북한보다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더욱 지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공동응원을 바라보며 든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 론 문 4

언론의 시각, 논란의 본질과 개선방향

하채림 | 연합뉴스 기자

북한판 할슈타인 독트린을 넘어

토론회 기획안에는 제 토론의 주제가 '논란의 본질과 개선 방향'으로 주어졌습
니다만, 제 식견과 역량에 감당이 안 되는 주문이라 북한 축구단 방남과 시민
사회의 공동응원을 취재한 기자로서 받은 느낌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번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은 북한이 통일전
선 포기를 선언한 후 대남 기초의 운영·관리를 시험한 테스트베드이자 예고편
으로 보이고, 우리에게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을 일반 대중이
체감한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북한의 달라진 노선에
대응할지 숙제를 받아 안았습니다.

4월 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이 공식 발표된 후 첫 통일부 언론 브리핑에
서 제가 대변인에게 질문한 것도 북한이 여권을 제시할 거로 보는지, 그렇게
하면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취재진이나 관중에
'북한' 호칭 자체를 요청할 것인지에 관해 주로 질문했습니다. 학계와 정치권
의 담론과 논쟁에 머물러 있던 '두 국가론'이 현실의 문제가 됐고, 일반 대중
의 눈높이에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내고향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취재진의 '북측' 발언에 대한 선수단의 거친 반응
과 돌발 퇴장은 '적대적 두 국가' 실행의 정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해당
취재진의 '북측' 표현은 관례에 따르면 그렇게 무례한 것도 아니었기에 대중의
당혹감과 무력감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또 정세상 급변이 없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높아진 전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판 할슈타인 독트린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국제회의를 중국에서 현지 기관과 협력해 개최하려 했다가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사업 경험과 역량이 있는 국제기구들이 한국, 특히 통일부와 협업에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아 여자클럽축구 4강전에서도 북한은 ARF를 통해 세세한 요구를 우리에게 전달해 관철시켰습니다. 북한의 일방주의를 수용만 해야 하는지 분통을 터뜨리는 언론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실력행사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종북 물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전략이나 장기적인 구상, 일관된 실천이 보이지 않고 일회성 대응이 반복되는 데서 오는 자괴감입니다.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그에 따른 실천 과제나 타협의 여지를 설정해야 우리 내부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침반과 좌표가 정치 지형에 따라 변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토론과 타협보다는 비난과 극한 대립이 지배하는 상황이 심화하고,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낙관할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배우며 타협의 장을 만들어 공감대와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답정너' 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동응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회적 대화가 전개됐다고 봅니다. 혈세로 왜 북한을 응원하나, 홈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서러움이 왜 우리 선수들의 몫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고 답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사회적 대화의 발제자 역할을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취지와 집행 노력에 대해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사소하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기사를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리에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이뤄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동응원 자체를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했겠습니다만, 대중의 눈높이에서 더 선제적,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 내부의 역할분담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소통 철학 "정치는 국민보다 반 보만 앞서가야 한다"를 잘 아실 것입

니다. 이러한 대중적 프로젝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스포츠 기자들과 서포터스가 함께하는 긴급 난상토론회가 열렸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기 당일 관중석 앞 치어리딩 업체의 일방적인 내고향축구단 응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계속 일방적 응원을 하기에 "왜 수원 구호는 연호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답을 두세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기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는지 나중에야 수원을 외치기는 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스포츠 기자들의 편파 응원 비판은 분명 과장됐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자잘한 것들입니다만 때로는 이러한 사소한 현상들이 깊은 취약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입니다. 기금 지원 이슈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산 결과의 국회 보고가 남았습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의 용도 조항을 보면 공동응원 지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으로 조성된 기금인 이상, 공감대 안에서 집행돼야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 노선 하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또 인도적 협력분야 시민사회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금의 용도, 거버넌스, 집행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데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끝.

토 론 문 5

내고향여자축구단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 방향

이조영 | 「적대적 두 국가의 스포츠교류와 평화」 저자

1. 들어가며

예상치 못했던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참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갈등과 반대로 있었지만,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우승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선 선수단에게 한국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다녀갔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그럴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방한을 반기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너무 흥분하고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은 남북 관계는 물론 남한 사회 내부에 무거운 숙제를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변하였는데 우리만 아직 과거에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숙제도 주었지만, 국제사회에 엄연한 두 국가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교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에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남한 내부에는 앞선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였지만, 남북 관계와 이념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변화를 살펴보고, ‘두 국가’ 관계에서 스포츠 교류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남북 스포츠 교류 새로운 전환점

1) 남북 스포츠 교류 역사

80년 넘는 분단 기간 중에 스포츠 분야는 가장 먼저 대화가 시작된 분야로 생각보다 일찍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재건한 조선체육회 산하의 조선올림픽위원회가 1947년 IOC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가입 조건에 북쪽의 선수들을 포함시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참가 문제로 1950~60년대 남북 체육 회담이 계속되었지만, 아쉬울 것 없는 남한의 소극적 대응으로 회담에 진척이 없었고, 결국 IOC가 북의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정식으로 별도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승인하면서 스포츠에서도 완전한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남북이 국제대회 초청이나 단일팀 제안 등이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고, 정권의 안정이나 체제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탈냉전 시기에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공동응원이 처음 시작되었고, 그 열기가 남북통일축구로 이어져 최초로 남북 축구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탁구와 청소년축구 남북단일팀이 성사되었는데, 탁구는 여자단체팀이 당시 세계최강 중국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차지했고, 청소년축구도 모두의 예상을 넘어 8강에 진출하면서 한민족 전체에 뜨거운 동포애와 감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이 총리급 회담 등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까지도 남북관계의 기본 개념인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때 상호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방정책이 쇠퇴하면서 스포츠 교류도 냉각되고 지속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이때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통일농구대회 등 다양한 민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이 일어났고, 북한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대회에 최초로 참가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선수단과 함께 수백명 규모의 응원단이 함께 참가했는데, 이들은 ‘미녀응원단’이라는 수

식어가 붙으며 관중을 구름처럼 몰고 다녔고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관심과 인기를 끌며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침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남한이 참가하여 김우식 선수가 우승하면서 최초로 평양 하늘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사건이 있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 선수단이 참가하며 전격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가하면서 전쟁직전의 한반도 분위기가 한순간에 평화모드로 바뀌었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의 북진’을 외치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스포츠는 물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채 한반도는 다시 전쟁 위험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습니다.

2)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제 대회 규칙 준수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를 선언하며 남북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노이회담 결렬 후 자력갱생을 통한 생존전략이 성공하며 국제사회 전략 국가를 지향하는 조선이 남북 대화에 쉽게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전처럼 남한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조선이 대화에 응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은 단순히 하노이 회담 결렬이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랜기간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야 그 해결 방안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류도 변화된 글로벌 정세에 맞게 새로운 방식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마침 이러한 때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있

었습니다.

내고향팀의 방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가 아니었고, 남북 관계 개선과 관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AFC가 주관하는 아시아여자축구클럽챔피언십이라는 국제 대회에 조선이 참가한 것이고, 하필 준결승과 결승전이 열리는 장소가 대한민국 수원이었기 때문에 방한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해진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가한 것입니다. 즉,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가 아니라 국제 대회였고, 순수한 스포츠 경기였기 때문에 방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고향팀의 참가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스포츠 교류가 남북 사이 화해의 신호가 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국제사회, 국제 스포츠 규범과 규칙 안에서 어떻게 ‘두 국가’로서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스포츠를 통해 경험하는 남북 교류, 남북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 국제 스포츠 대회 남북교류: ‘두 국가’ 상황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갈등 해결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지만, 이란 경기가 있었을 때는 이란의 국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국가도 연주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와 욕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경기 규범과 규칙은 최소한 그런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국제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조선이 직접적인 남북 대화는 거절하면서도 한국에서 개최된 대회에 참가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붕괴된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직접적인 남북 대화나 교류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남북 관계 개선에 활용할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는 우리 사회 이념적 갈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회에서 내고향팀이 우승한 이후에 인공기를 들고 세레모니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나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에서 승리한 팀이나 선수가 국기를 들고 세레모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클럽팀 경기가 아니고 올림픽이나 국가 대항 경기였다면 국기계양과 국가 연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념적 논쟁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정치가 ‘두 국가’를 받아들이나 마느냐 논쟁하고 있을 때, 스포츠는 이미 그러한 논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2023년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북한과 미국이 경기하는 경우 20대는 40%:60%, 30대는 46%:54%로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미 젊은 층들은 조선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조선의 ‘두 국가’ 주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국가’ 전략을 조선은 최근에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훨씬 전에 더 먼저 추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번 내고향팀의 방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무대가 남북 관계 개선이나, 남남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참가하는 국제 대회는 남북이 국제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여 경쟁하고,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남과 북이 국제 대회 현장에서 만나 교류할 때도 그렇겠지만, 그 대회가 남과 북 현장에서 펼쳐질 때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많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여기에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 조선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기간 지속된 불신의 골이 치유될 때까지 국제경기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등 과거와 같은 남북 스포츠 교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국가’ 관계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남북 스포츠 교류를 모색해야 합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과거에 남북 화합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두 국가’관계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할 방법을 찾는데 스포츠 교류의 역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 무대로 눈을 넓혀 교류 방법을 찾는다면 스포츠 교류가 남북 관계 개선

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고, 변화된 남북 관계, 즉 ‘두 국가’ 관계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이 서로를 국제 사회 일원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정해진 규범과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스포츠에서 그 해답을 찾고 배우기를 희망합니다.